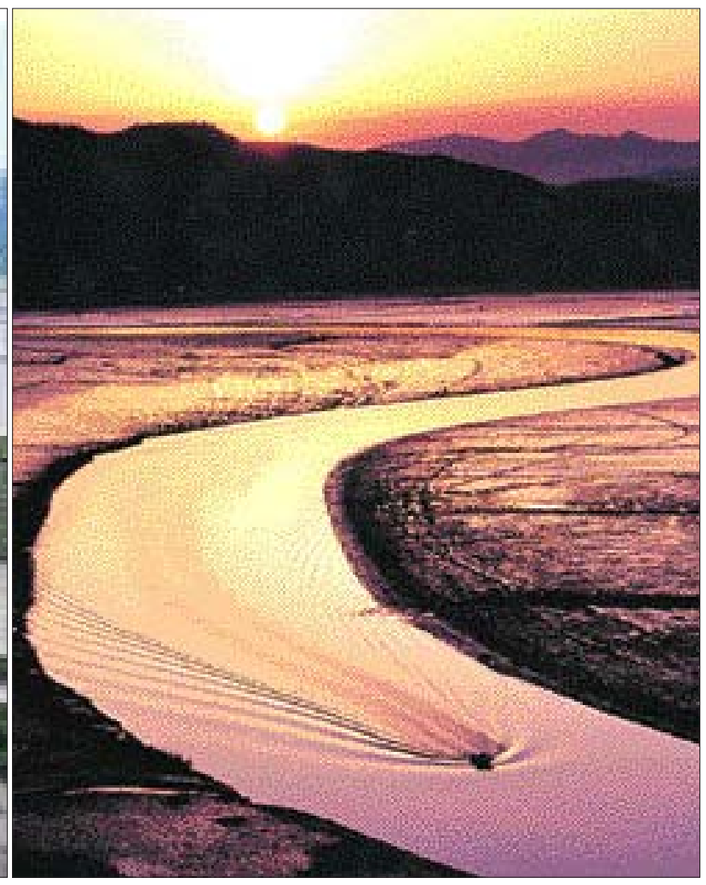
▶ 놀며 배우는 연안습지 여행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알려진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장관을 연출해 가족단위 연안습지 여행지로 최적이다.

#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체험학습 즐거움에 감탄

## ● 갯벌, 갈대, 철새의 낙원 순천만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무대로 알려진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한 곳인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자연교과서다.

갯벌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명승 제 41호로 등재된 순천만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탐방 하는 것도 좋으나, 주말을 활용한 생태 관광객이라면 주말 오후 2시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운영하는 생태환경교실에 참여하면 더욱 유익한 여정이 된다.

자연생태해설사는 박물관 안내뿐 아니라 순천만 갈대숲탐방로를 거닐면서 갈대, 철새, 갯벌이야기 등 순천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갈대를 이용해 바람개비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해질 무렵 용산전망대에 올라서면 붉은 노을 아래 펼쳐진 원형갈대숲과 'S'자 물길을 감상하게 된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60년대 가난의 상징이었던 달동네를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다. 선암사는 꽃과 나무가 많아 사색하기에 좋은 절이며 전통야생차체험관에 가면 그윽한 다도체험을 할 수 있다.

고개 넘어 송광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승보종찰이며 읍성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문의 : 순천만자연생태관 061-749-3006

신안군 '증도'는 최근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돼 국제적으로도 천연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됐다. 우전해수욕장의 전경.

## ● 생태, 느림의 미학이 기다리는 증도

생태관광지 신안군 '증도'가 최근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도 그 천연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게 돼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증도는 2006년 개관한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갯벌생태 교육공간인 갯벌생태전시관이 있다.

1층 전시관에서는 갯벌의 탄생과정과 우리나라 갯벌의 모습, 갯벌 생물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으며, 2층 체험학습실에서는 밀물 썰물 관찰과 소리체험 등이 가능하고, '갯벌'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교육 장소이다.

증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천일염'의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금박물관도 가볼 만하다. 그밖에 사전예약 시 갯벌체험과 염전체험, 숲해설 체험을 할 수 있다.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촬영지인 화도와 노두길, 이국적인 우전해수욕장 비치, 울창한 해송숲길로의 걷기 체험도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증도는 아이들에게는 놀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현장이자, 어른들에게는 도시의 바쁜 일상을 벗어던질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을 선사하는 섬이다.

문의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5, 증도갯벌생태전시관 061-275-8400

## ● 인간과 자연의 공존 낙동강 하구

부산의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에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있다.

2007년 6월 개관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낙동강 주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낙동강의 특성과 습지에 대한 이해, 낙동강 하구의 형성, 특징,생물 먹이사슬,철새 이야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실내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생물그림뜨기, 조류 관찰하기, 족적뜨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자연학습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갯벌체험, 하구답사, 갈대체험, 수서곤충관찰, 짚풀공예, 탐조활동 등이 있다.

20인 이상인 경우 단체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낙동강하구 물문화관, 부산아쿠아리움, 부산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도 훌륭한 교육여행지로 손꼽힌다.

금련산~황령산 산길 드라이브, 유람선 여행 등도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관광마케팅계 051-888-8224, 낙동강하구에코센터 051-888-6861~2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